

유란시아서

<< [제 160 편](#) | [부분](#) | [내용](#) | [제 162 편](#) >>

제 161 편

로단과 계속한 토론

161:0.1 (1783.1) 서기 29년 9월 25일 일요일에, 사도와 전도사들은 마가단에 모였다. 그날 저녁에 동료들과 함께 긴 회의가 있는 뒤에, 예수는 이튿날 아침 일찍 그와 열두 사도가 천막 축제에 참석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겠다고 발표하여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는 전도사들에게 갈릴리에 있는 신자들을 찾아보라, 여인단은 한동안 벳세다로 돌아가라고 지시했다.

161:0.2 (1783.2)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날 시각이 되었을 때, 나다니엘과 토마스는 아직도 알렉산드리아의 로단과 한창 토론 중이었고, 며칠 동안 마가단에 남아 있도록 주로부터 허락을 얻었다. 그래서 예수와 열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난 동안, 나다니엘과 토마스는 로단과 진지한 토론에 들어갔다. 그 전주에 로단은 자기의 철학을 해설했고, 토마스와 나다니엘은 하늘나라 복음을 그리스인 철학자에게 번갈아서 발표했다. 로단은 예전에 세례자 요한의 옛 사도들 중 한 사람으로부터 예수의 가르침에 관하여 자신이 잘 교육받았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서 그의 선생이었다.

1. 하나님의 성격

161:1.1 (1783.3) **로단**과 두 사도가 다르게 보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성격이었다. **로단**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하여 그에게 제시된 모든 것을 쉽사리 받아들였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사람이 인격을 상상하는 것과 같은 성격자가 아니고 그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도들은 **하나님**이 성격을 가진 분인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면서 자신들이 곤경에 빠진 것을 발견했고, 한편 **로단**은 **하나님**이 성격자가 아님을 증명하기가 한층 더 어려움을 깨달았다.

161:1.2 (1783.4) 성격이라는 사실은 동등한 존재들, 공감하여 이해할 능력이 있는 존재들이 충분히 서로 교통한다는, 공존하는 사실에 달려 있다고 **로단**은 주장했다. **로단**이 말했다: “성격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와 접촉하는 자들이 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영이 교통하는 상징을 가져야 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 · 영원하며, 모든 다른 존재의 **창조자**이니까, 따라서 동등한 존재에 관하여 말하면, **하나님**은 우주에서 혼자이라. 그와 동등한 이가 아무도 없고, 동등한 이로서 그가 함께 교통할 분이 하나도 없느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성격의 근원일지 모르지만, 그런 분으로서 **창조자**가 지음받은 자 위에 초월하여 계시는 것 같이, **하나님**은 성격을 초월하느니라.”

161:1.3 (1783.5) 이 주장은 **토마스**와 **나다니엘**을 크게 난처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예수**에게 구조하러 와달라고 요청했지만, 주는 그 토론에 끼어들려 하지 않았다. 그는 **토마스**에게 이렇게 귀뜸해 주기는 하였다: “너희가 **아버지**의 이상인 무한 · 영원한 성품을 영적으로 숙지하는 한,

아버지에 대하여 너희가 무슨 개념을 품는가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느니라.”

161:1.4 (1784.1) **하나님**은 사람과 교통하며, 따라서 **로단**의 정의(定義)를 써도 **아버지**는 성격자라고 **토마스**는 주장했다. 이것을 **그리스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몸소 드러내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직도 신비라는 이유로 물리쳤다. 다음에 **나다니엘**은 자기가 몸소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예를 들어 호소했다. **로단**은 그가 요즈음에 비슷한 체험을 가진 적이 있다고 증언하면서 이를 인정했지만, 이런 체험은 오직 **하나님**이 실체임을 증명할 뿐이고 성격임을 증명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161:1.5 (1784.2) 월요일 밤이 되자 **토마스**는 두 손을 들었다. 그러나 화요일 밤이 되어서, **나다니엘**은 **로단**이 **아버지**가 성격을 가진 분임을 믿도록 설득했고, 다음 단계의 논리로 **그리스인**의 관점을 바꾸게 하였다:

161:1.6 (1784.3) 1. **파라다이스**에 계신 **아버지**는 적어도 다른 두 존재와 동등하게 교통하며, 이들 —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 — 은 자신과 완전히 대등하고 자신과 온전히 비슷하다. **삼위일체** 교리에 비추어서, **그리스인**은 **우주의 아버지**가 성격자일 가능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 토론을 후일에 고려한 것은 열두 사도의 머리 속에, 확대된 **삼위일체** 개념으로 이끌었다. 말할 것도 없이, **예수**가 **영원한 아들**이라고 일반적으로 믿었다).

161:1.7 (1784.4) 2. **예수**가 **아버지**와 대등하니까, 그리고 이 **아들**이 땅에 있는 자녀들에게 인격을 드러내 보이는 일을 해냈으므로, 그러한 현상은 세 신격(神格)이 모두 성격을 소유한다는 사실과 또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며, **하나님**이 사람과 교통하는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물음에 영원한 해답을 준다.

161:1.8 (1784.5) 3. **예수**가 사람과 서로 교제하고 완전히 교통하는 사이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동등하게 교통하고 같은 감정으로 서로 이해하는 것을 전제(前提)로 한다, **예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는 동시에 **하나님**과 사람, 양쪽과 이해하면서 교통을 유지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양자가 **예수**가 교통하는 상징의 뜻을 이해하니까, 서로 교통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 조건이 관계되는 한, **하나님**과 사람이 모두 성격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예수**의 인격은 **하나님**의 성격을 보여주며, 한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확고하게 증명한다. 똑같은 것에 관련된 두 가지는 서로 관계된다.

161:1.9 (1784.6) 4. 인격은 인간적 실체와 신다운 가치에 대하여 사람이 가진 최고의 개념을 대표한다, **하나님**은 또한 신다운 실체와 무한한 가치에 대하여 사람이 가진 최고의 개념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답고 무한한 성격임이 틀림없다, 실제로 비록 사람의 인격 개념 및 정의(定義)를 무한히, 영원히 뛰어넘는 성격이지만, 그런데도 언제나 보편적으로 성격이다.

161:1.10 (1784.7) 5. **하나님**이 모든 성격의 창조자요 모든 성격의 운명이니까, **하나님**은 성격임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하는 **예수**의 가르침에 **로단**은 이전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았다.

161:1.11 (1784.8) 이 여러 논점을 듣자, **로단**이 말했다: “확신이 드는구나. 초인간 · 초월 · 최상, 무한 · 영원 · 최종, 그리고 보편성과 같은

연장된 가치들을 성격의 의미에 붙여서, 그런 믿음에 대하여 나의 고백을 제한해도 된다면, **하나님**이 성격자임을 나는 고백하겠노라. **하나님**이 성격보다는 무한히 크심이 틀림없지만, 성격보다 작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확신하노라. 논쟁을 그만두고, **예수**는 **아버지**가 몸소 계시된 것이요, **예수**가 논리 · 이성 · 철학에서 충족되지 않은 모든 요소를 충족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 나는 만족하노라.”

2. 예수의 신다운 성품

161:2.1 (1785.1) **로단**이 하늘나라 복음에 대하여 가진 견해를 **나다니엘**과 **토마스**가 아주 충분히 인정했으므로, 더 고려할 것이 오직 하나 남았는데, 즉 **예수**의 신다운 성품을 다루는 가르침, 겨우 최근에야 터놓고 선언한 신조이다. **나다니엘**과 **토마스**는 주의 신다운 성품에 관하여 견해를 공동으로 발표했고, 다음 이야기는 그들의 가르침을 요약하고 다시 정리하고 다시 적은 발표이다:

161:2.2 (1785.2) 1. **예수**는 그의 신성(神性)을 이미 인정했고, 우리는 그를 믿는다. **사람의 아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일이 그의 사명과 관련하여 일어났다.

161:2.3 (1785.3) 2. 일생동안 그와 우리의 관계는 인간 우정의 이상(理想)을 본보기로 보여준다. 오직 신다운 존재가 아마도 그러한 인간 친구일 수 있다. 그는 우리가 일찍이 알게 된 가운데 참으로 가장 이기심 없는 사람이다. 죄인에게도 친구이고, 감히 적을 사랑한다. 그는 우리에게 무척 충실하다. 서슴지 않고 우리를 꾸짖지만, 그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 모두에게 명백하다. 사람이 그를 잘 알수록, 더욱 그를

사랑할 것이다.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그의 헌신적 태도에 마음이 끌릴 것이다. 우리가 그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 여러 해 동안 내내, 그는 충실한 친구였다. 비위 맞추는 말을 전혀 하지 않지만, 우리 모두를 똑같이 친절하게 다루며, 변함없이 부드럽고 동정심이 있다. 그의 인생과 모든 다른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었다. 우리는 행복한 공동체요, 무엇이나 공동으로 함께 쓴다. 우리는 그렇게 벅찬 상황 밑에서 한낱 인간이 그런 티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161:2.4 (1785.4) 3. **예수**가 결코 그릇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신성하다고 생각한다.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는다. 그는 놀랍게 지혜롭고, 더할 나위 없이 경건하다. 날마다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맞추어 산다. **아버지**의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니까 결코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기도하지만, 결코 우리에게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요청하지 않는다. 그는 변함없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 우리는 믿는다. 겨우 인간인 자가 일찍이 그러한 삶을 산다고 공언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완전한 삶을 산다고 주장하고, 그가 그렇게 한다고 우리는 인정한다. 우리의 경건함은 뉘우침에서 생기지만 그의 경건함은 올바름에서 솟아나온다. 그는 죄를 용서한다고 공언하기도 하며 병을 고친다. 한낱 인간이 멀쩡한 정신에 죄를 용서한다고 공언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신의 특권이다. 우리가 그와 처음 접촉했을 때부터 그는 올바름 속에 이렇게 완전한 듯하였다. 우리는 은혜 속에서, 그리고 진실을 아는 가운데 자라지만, 우리의 주는 처음부터 성숙한 올바름을 나타낸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모두가 **예수** 안에서 이 선한 요소를 알아본다. 그래도 그의 경건함은 결코 눈에 거슬리거나 꾸미는 듯하지 않다. 그는 온유하고도 두려움이 없다. 우리가 그의 신성을 믿는 것을 승인하는 듯하다. 그는 공언하는 대로 그런 분이든지, 아니면 세상에 일찍이 알려진 가운데

최대의 위선자요 사기꾼이다. 그는 자기가 주장하는 그대로 바로 그런 분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161:2.5 (1785.5) 4. 그의 독특한 성품, 그리고 감정의 완전한 자제는 그가 인간과 신(神)의 결합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준다. 그는 인간적 필요가 있는 장면에 어김없이 반응하며, 사람의 고통이 그의 마음에 호소하지 않는 적이 없다. 그의 동정심은 육체의 고통, 정신의 고뇌, 또는 영적 슬픔에 똑같이 반응한다. 동료 인간에게 믿음이나 어떤 다른 장점이 있음을 재빨리 알아보고 너그럽게 인정한다. 아주 공정하고 공평하며, 동시에 무척 자비롭고 배려가 깊다. 사람들의 영적 완고함을 슬퍼하고, 사람들이 진실의 빛을 보는 것에 찬성할 때 기뻐한다.

161:2.6 (1786.1) 5. 그는 사람들의 머리 속에 있는 생각을 알고 마음 속의 소망을 이해하는 듯하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불안한 것에 반드시 공감한다. 우리 인간의 감정을 모두 가진 듯하지만, 그 감정은 훌륭하게 영화롭게 되었다. 선을 뚜렷이 사랑하고 죄를 똑같이 미워한다. 신이 앞에 계심을 초인간적으로 의식하고 있다. 사람처럼 기도하지만 **하나님**처럼 행동한다. 사물을 미리 아는 듯하다. 지금도 감히 그의 죽음에 대하여 말하고, 앞날에 그가 영화롭게 된다고 어떤 신비스러운 말씀을 한다. 친절하지만, 또한 대담하고 용감하다. 의무를 다하는 데 결코 그르치지 않는다.

161:2.7 (1786.2) 6. 우리는 그가 초인간적 지식을 가진 현상에 항상 감명을 받는다. 미처 하루가 지나기 전에, 바로 그가 계신 데서 떨어진 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주가 아는 것을 드러내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는 동료들의 생각을 또한 아는 듯하다. 의심할 여지없이 그는 하늘 성격자들과 교통하며, 질문의 여지없이 나머지 우리보다 훨씬 높은

영적 수준에서 산다. 독특하게 알아보는 그의 눈앞에 모든 것이 펼쳐진 듯하다. 그는 우리와 대화하려고 묻지, 정보를 캐내려고 묻지 않는다.

161:2.8 (1786.3) 7. 요즘에 주는 자기의 초인간성을 서슴지 않고 주장한다. 우리가 사도로서 세움받은 날부터 바로 최근에 이르기까지, 결코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부인한 적이 없다. 그는 신다운 선생의 권위를 가지고 말썽한다. 주는 서슴지 않고 오늘날 종교 선생들의 종교적 가르침을 논박하고, 분명한 권위를 가지고 새 복음을 선포한다. 그는 주장을 내세우며, 적극적이고 권위가 있다. **세례자 요한**조차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마음 속에 아주 부족함이 없는 듯하다. 군중의 지지(支持)를 갈망하지 않으며, 사람들의 의견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용감해도 도무지 자만이 없다.

161:2.9 (1786.4) 8. 무슨 일을 행하든 그는 늘 계시는 동료인 **하나님**에 대하여 항상 이야기한다. 좋은 일 하는 데 몰두하며, 이는 **하나님**이 안에 계신 듯하기 때문이다.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땅에서 그의 사명에 대하여 대단히 놀라운 주장을 하며, 그런 주장은 그가 신이 아니라면 터무니없다. 그는 한때 선언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노라.” 분명히 신성을 주장해 왔고 **하나님**과 동업자라고 공언한다. 하늘 **아버지**와 가까운 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느라고 가능한 언어를 거의 다 동원한다. 감히 자기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누구라도 그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한다. 아이처럼 자연스럽게 이 엄청난 일을 모두 말하고 행한다. 그와 우리의 관계를 언급하는 바로 그런 식으로 그와 **아버지**의

관계를 비쳐 말한다.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확신하는 듯하고, 그런 사무적인 방법으로 이 관계들에 대하여 말한다.

161:2.10 (1786.5) 9. 기도(祈禱)하는 생활을 보면 그는 **아버지**와 바로 교통하는 듯하다. 우리는 그가 드리는 기도를 조금 밖에 듣지 못했지만 몇 번 안 되는 이 기도는, 말하자면 그가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함을 가리킬 것이다. 지난날만 아니라 앞날을 아는 듯하다. 그가 인간을 넘는 무엇이 아니라면, 그는 단지 이 모든 것일 수 없고 이 모든 놀라운 일을 할 수 없다. 우리는 그가 사람임을 알고 그렇다고 확신하지만, 또한 신이라고 거의 똑같이 확신한다. 우리는 그가 신이라고 믿는다. 그가 **사람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한다.

161:2.11 (1787.1) **로단**과 회의를 마치고 나서, **나다니엘**과 **토마스**는 동료 사도들과 함께 하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서둘러 갔고 그 주 금요일에 도착했다. 이 세 신자 모두의 생애에서 이것은 큰 체험이었다. 다른 사도들은 **나다니엘**과 **토마스**가 겪은 이 체험을 돌이켜보고 많은 것을 배웠다.

161:2.12 (1787.2) **로단**은 **알렉산드리아**로 돌아갔고, 거기서 오랫동안 **메간타** 학교에서 그의 철학을 가르쳤다. 그는 후일의 하늘나라 업무에서 막강한 사람이 되었다. 땅에서 마지막 날까지 충실한 신자였고 박해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에서 목숨을 바쳤다.

3. 예수의 인간 지성과 신 지성

161:3.1 (1787.3) 신(神)이라는 의식은 **예수**가 세례받을 때까지 머리 속에서 차츰차츰 자랐다. 자신의 신다운 성품, 인간이 되기 전의 존재, 우주 특권을 충분히 자의식하게 된 뒤에, 자신의 신다운 성품을 인간으로서 의식하는 것을 그는 다양하게 제한하는 능력을 가졌던 듯하다. 우리에게는, 그가 세례받은 때부터 십자가에 처형되기까지 오직 인간 지성에만 의존하든지, 아니면 인간 및 신의 지성, 이 두 가지 지식을 이용하든지, 전적으로 **예수**의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때때로 그는 오직 인간 지능에 거하는 정보만 이용하는 듯했다. 다른 경우에는 신의 의식에 있는 초인간적 내용을 이용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충만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행동하는 듯했다.

161:3.2 (1787.4) 그가 신이라는 의식을 뜻대로 스스로 제한할 수 있다는 이론을 받아들여야 우리는 그의 독특한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 여러 사건에 대한 선견을 동료들에게 주지 않는 일이 흔했고, 동료들의 생각과 계획의 성질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인식한다. 우리가 이해하건대, **예수**가 그들의 생각을 헤아리고 계획을 꿰뚫어볼 수 있다는 것을 추종자들이 너무 잘 알기를 그는 원하지 않았다. 그는 사도와 제자들이 머리 속에 지녔던, 인간의 개념을 너무 멀리 초월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161:3.3 (1787.5) 신으로서 자기의 의식(意識)을 스스로 제한하는 습관, 그리고 미리 알고 생각을 꿰뚫어보는 것을 인간 동료들에게 감추는 기술, 이 둘의 차이를 우리는 도무지 구별하지 못한다. 그가 이 두 가지 기술을 쓴다고 확신하지만, 우리는 어느 주어진 경우에 그가 어느 방법을 이용했는가 반드시 잘라서 말할 수 없다. 인간 의식에 들어 있는 내용만으로 그가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관찰했으며, 우주의 하늘 집단의 지도자들과 그가 회의하는 것을 보고, 의심할 여지없이 신의 지성이 활동하는 것을 헤아리곤 했다. 그 다음에 거의 수없이

많은 경우에, 인간 및 신의 지성이 겉보기에 완전히 통일된 가운데
활성화되어, 이러한 사람과 **하나님**의 통합된 성격이 일하는 것을
우리는 구경했다. 이것이 그러한 현상에 대하여 우리가 가진 지식의
한계이다. 우리는 정말로 이 신비에 관하여 완전한 진실을 실제로 알지
못한다.